

초강력 태풍 '힌남노' ...광주·전남 비상

6일 오후 부산 50km 해상 진출
남해안 집중호우·강풍 예고
취약지 집중점검 선제 대응

초강력 강도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도도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시·도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취약지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후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km 해상을 지나 남서진하고 있다. 힌남노는 2일 밤까지 대만 동쪽, 일본 오키나와 주변 남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기에 힌남노 강도 변화가 '1차 변수'로 꼽히고 있지만, 힌남노는 정체 기에도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것인데 현재 전망으로 힌남노는

이날 오후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중심기압이 915hPa(헥토파스칼)로 '초강력 태풍' 지위를 유지하겠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는 중심기압이 951.5hPa였다.

힌남노는 2일 밤부터 정체를 끝내고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상하면서 도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지기겠다.

현재 기상청 전망으로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 강도가 '매우강'인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70km 해상을 지나고 6일 오전 9시 서귀포 동북동쪽 180km 해상에 이르렀다.

힌남노가 예상대로 북상한다면 5일 오후부터 6일 또는 7일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안이나 산지 등 지형 영향이 있는 곳에선 총강수량이 500mm를 넘기도 하겠다. 연 강수량 절반이 하루 이틀에 내린다는 전망이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의 최대순간 풍속이 50%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을 들어 발생한 11개의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힌남노가 접근하면서 광주시,



전남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기상 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4시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태풍 영향권 진입 전 긴급재난문자(CBS), 마을앰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험지역 접근 금지·통제 등 국민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관부서와 자치구를 통해 강풍 피해에 대비해 야외시설물, 간판 등에 대한 고정·철거 등 사전 조치를 하고, 대형공사장과 건축·철거 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해 양수기 등 주요 수방장비 점검 점검을 마친 데 이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배수구 집중점검도 2일까지 실시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재로 실국 및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취약지 선제적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보강, 수산물 양식장과 가두리 시설의 안전조치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예·경보시설, 배수시설, 위험지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4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 및 시군별 대처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길용현·임채민 기자

김경 (주)에이플러스에셋 상무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는 김경 (주)에이플러스에셋 상무가 광주 143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동기 (주)누리산업 개발 회장, 박영순 (주)소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김 상무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가입을 축하했다.

김 상무는 1억원을 약정해 아너 소

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내 완납을 약정하면 회원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김경 (주)에이플러스에셋 상무(왼쪽 세번째)가 광주 143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공동모금회 제공

하고 있다.

김 상무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우 기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알립니다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9강'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연이 오는 5일 화요일인 광주호텔 2층 아틀리에홀(별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17·18·19·20대 4선의 국회의원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여성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은 나 전 원내대표는 판사로 재임하다 정계에 입문, 새누리당 당시 서울시장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대변인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20년 청년친화정당대상(청년과 미래)에 이어 신사업대상(올곡문화원)을 받았으며,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나경원의 증언', '세심' 등 다수를 집필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탄소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CADEMY

-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오후 7시
- ▶장 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틀리에홀(별관)
- ▶강 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연주제: 탄소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
- ▶문의전화: 전남매일 관리국 (062-720-1012)
- ※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후 7시 강의

M 전남매일

옛 상무소각장, 문화시설로 변신한다

시, 문화재생 설계공모 선정

광주시는 1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공장동 문화재생사업 설계공모에서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소멸에서 소생으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심사는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응모작품 중 공간·배치·경관·리모델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했다. 별도의 4개의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소각장의 재생을 통해 공원과 광추천, 도시와 자연을 비롯한 상무지구 일대의 순환을 이뤄내는 '소멸에서 소생'을 주제로 소각장 부지 내 인접해 건립하는 대표도서관과 지하로 자연스럽게 연계했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이주하나/문장건설
http://moonjang.kr

'건축' 그이상의 가치를 짓다.

[사업영역]

- BUSINESS**
건축
사람과 공간을 잇는 기술력
- BUSINESS**
토목
도로, 철도, 항만, 부지조성
- BUSINESS**
주택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집
- BUSINESS**
조경·전기
문화 공간, 교육 시설,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친환경 발전소

(주)문장건설은 지금까지 쌓아 온 기업 가치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경영,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성장하는 중견건설회사입니다. 21세기 경영 패러다임인 미래 고객가치(Customer value) 추구를 위하여 (주)문장건설은 각종 후원 및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기술개발과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도 및 브랜드 경쟁력을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